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9월

- 1(수)-6(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 1(수)-6(월) 기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 1(수)-6(월) 2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 (2021년 10월 시행)
- 1(수)-6(월)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1(수)-6(월) 학위청구방식 신청 및 변경 기간(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 1(수)-6(월)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5 학기생)
- 1(수)-10.8(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 3(금)-8(수)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 9(목)-15(수)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 20(월)-22(수) 추석(공휴일)

10월

- 1(금)-29(금)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4(월) 개천절 대체휴일
- 8(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8(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 11(월) 한글날 대체휴일
- 12(화)-18(월) 2022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
- 12(화)-20(수)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
- 20(수)-11.2(화) 2학기 중간고사
- 29(금) 2021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김성일
- 주간 김홍찬
- 간사 문정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취임사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자세

다른 동물과 구분 짓는 인간의 독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을 마주 볼 수 있고, 요리와 농담을 하고, 예술을 즐기며, 타인의 마음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성을 토대로 인간은 집단으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유일한 종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이 학습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아이러니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대 간의 환경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기존 세대의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문가의 배출이었고, 학교의 기능은 지식과 가치의 전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의 주기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AI의 확산과 초연결 사회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전혀 다른 유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식, 기술 및 가치의 습득보다는 창의적 문제해결이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학생 수의 감소로 원격 교육과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핵심 역량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아마도 기계가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 능력, 즉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과 소통능력, 자기조절능력 및 윤리의식 등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AI tutor, Minerva school, nano degree, metaverse school... 한 번쯤은 들어 봤을 용어 들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진화는 이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교육과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근의 팬데믹 상황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단순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서, 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혜로운 성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육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방법에 대한 근원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운동 미래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정해지고 약속된 미래는 없으므로 미래 예측은 언제나 불안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설픈 예측이나 막연한 두려움



김성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으로 인한 요란은 경계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처 방안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높은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교수진과 학생들의 수월성과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이러한 강점을 발판으로 향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지향할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차세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매카가 되고자 합니다. 미래의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미래창의교육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술모임(KU 미래교육포럼), 세미나, 튜토리얼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심도있는 담론이 확산되어 미래 교육의 본질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습자-교수자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스마트 교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세대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과목(학교현장 이해를 위한 과목: 디지털러

닝, 피드백 기술, 사회정서 학습, 개별화 교수, 통합교과개발, 청소년 뇌발달, 다양성 이해 등)을 대폭 신설하여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관련 강좌 또한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수-교사 팀티칭 융합교과의 비중을 늘리고, 기존 교육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즐거움과 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교사는 이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대학원 자체가 신나고 즐거운 학습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설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과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미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생회 자체 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대학원 장으로서 저의 임기는 2년밖에 되지 않지만, 대학의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나아갈 방향과 장단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면, 학습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좋은 결실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학문적 내실과 사회적 공헌도를 두루 갖춘 수준 높은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김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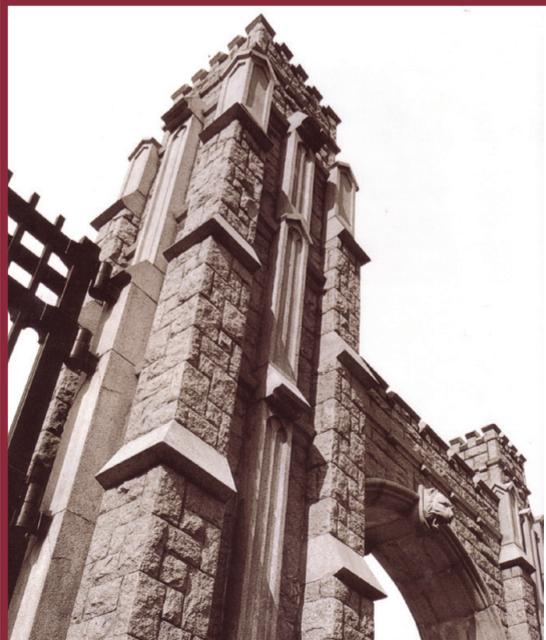
KU의 사계를 교육신문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 '교육신문' 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육신문 발전기금 납부 및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korea.ac.kr>)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서에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교육신문사로 보내주시고,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회비와 광고게재료는 기부금 납부 영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주 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107호 교육신문사
- 연락처 : 02-3290-1690 - 팩스 : 02-923-4540 - 이메일 : edunews@korea.ac.kr
- 교육신문 발전기금 • 교육신문 구독비 - 연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20만원

※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므로 세액공제 가능.



2021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



김성일 교육대학원장
이제 이 배움의 과정에 임하는 여러분께 인생의 선배이자 이 기관의 대표로서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9일(목) 오후 2시, 2021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입학식에 앞서 입학생 모두에게 관련 자료가 담긴 링크가 전송되었다. 공유된 자료에는 입학식사, 입학축사, 전공 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 학사안내, 교직원안내, 총학생회에서 준비

한 오리엔테이션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입학생은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입학식사 영상에서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언제나 '목표'와 '호기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고 나면 훌륭한 차세대 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

어서 김덕천 교육대학원 교우회장은 "비전을 갖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꿈 꾸만큼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며 "교우회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드릴 것"이라 격려했다.

전공 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 자료에서는 17개 학과 교수진의 학력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사안내 자료에는 수업 및 성적과 관련된 교무, 학적 및 논문, 장학 및 학생증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및 이수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다.

한편, 온라인 입학식 링크는 오는 9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되며 필요한 자료는 기한 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초과학기자 등록 안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초과학기자 등록 지침이 변경된다. 초과학기 등록 희망자는 사전 신청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초과학기자는 대학 9학기 이상 등록자이면서 9학점 이내 수강신청자이다.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 편입학은 5학기 이상 등록일 경우 대상자이다. 특수 및 전문대학원에서 초과학기자는 정규학기 초과 등록대상자이면서 3학점 이내 수강신청한 자이다. 희망자는 학점 또는 등록 금액과 관계없이 정규등록 기간이 아닌 최종등록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초과학기자이나 총수강 학점이 9학점 초과인 경우에도 최종등록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학기부터 초과학기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소속 행정실에서 초과학기 대상자 전체를 선정하여 소속 학과 승인을 거치면, 오

는 9월 13일(월) 오후 3시부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고려대학교 포털에 로그인하여 '등록/장학' 배너를 클릭하고, '초과학기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대상자 이외에는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으며,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에 일치하는 초과학기를 등록하면 된다.

초과학기자의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기간은 오는 9월 14일(화) 오전 9시부터 16일(목) 오후 4시까지이다. 단, 14일 이전에 고지서를 출력할 경우 고지 금액이 전액으로 표시되나 납부는 불가능하다.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책정된 금액으로 최종등록기간에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은 대학원의 경우, 신청학점이 1~3학점일 때 수업료의 1/2를 납부한다.

기타 문의는 소속 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로 하면 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0학년도 후기 총장상 시상식



지난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운조 우선교육관 사범대학강실에서 2020학년도 후기 총장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성일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김홍찬 교육대학원 부원장, 최영묵 제57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상이 수여되었다.

대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영묵 학우는 "학생대표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다음 학기에는 졸업식이 거행되어 석사가운을 입고 같이 교정에서 사진 찍을 날을 기대하며 원우님 모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세를 경계하여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최소 인원만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김성일 교육대학원장
목표는 계속 바뀌는 것이니 목표 설정을 두려워하거나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연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5일(수)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여식은 김홍찬 부원장의 진행 하에 석사학위 수여자 발표, 학위증서 대표 수여, 우수졸업자 발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공로상, 우수논문상, 성적최우수상, 성적우수상이 각각 비대면 방식으로 수여되었으며, 총장상 수상자 1명에 한해 대표로 대면 수여

가 진행되었다. 이후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의 학위수여식사, 김덕천 교우회장의 학위수여축사, 최영묵 전 총학생회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석사 과정 동안 배우고 익혔던 여러 능력을 토대로 차세대 교육의 주역으로 활동해주시길 것이라 믿는다."라고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23개 전공에서 총 172명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최영묵(상담심리교육전공) △공로상 김여진(교육정보전공), 조수흠(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우수논문상 윤미영(국어교육전공) 외 13명 △성적최우수상 선영아(체육교육전공) 외 21명 △성적우수상 김지혜(체육교육전공) 외 27명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안내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은 중간고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중간고사 이전 학사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간고사 시작일인 10월 20일(수) 이전까지는 강의계획안 상의 수업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수업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수업의 특성상 개강 시점부터 대면수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적 대면수업이 시행된다. 이 경우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중간고사 이후의 학사 운영 계획은 9월 말 이후에 확정 및 공지될 예정이다. 잠정적 계획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 및 방역 지침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당초 대면수업 또는 병행(혼합)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수업 중 실험/실습 및 실기 수업을 포함한 교과목은 제한적 대면·병행수업이 가능하다. 단, 참여 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강

의실 수용인원의 50% 이하인 강의 중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및 방역지침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당초 대면수업과 병행수업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서만 대면·병행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대면·병행수업의 허용 기준 인원은 학부 50명 미만, 대학원 20명 미만이다.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병행수업과 비대면수업 모두에 해당한다. 보강 및 시험기간 중의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녹화강의가 허용된다. 동영상은 강의 시간 이전에 업로드되어야 하며, 이번 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들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수업유형별 진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대면수업은 확진자 발생 시 임시 강의실로 배정되거나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의 경우 비정기적인 병행수업 진행은 가능하나 대면수업 진행은 불가하다. 수업유

형은 학기 중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성적평가 방식은 정부의 방역수칙과 연동하여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대면시험을 권장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비대면 시험의 실시나 과제물 대체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 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이 불가하다. 시험기간은 2주간으로 변경된다. 중간고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말고사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15주 차에 시행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이내에 법정수업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수업 및 성적평가 방식과 시험 일정은 지난 8월 20일(금) 수강신청 이전에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되었다. 강의실은 대면수업 및 병행수업의 경우만 배정되었으며 비대면수업의 경우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대면시험 시행 시에는 행정실을 통해 별도의 시험 강의실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전공별 주임교수 명단

이번 2021학년도 2학기에는 가정교육전공을 포함해 총 23개 전공의 수업이 개설된다. 각 전공의 주임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업이 개설된다. 각 전공의 주임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공명	주임교수	전공분야
1 가정교육전공	이예영	패션디자인
2 간호교육전공	오원옥	아동간호학
3 교육방법전공	박인우	교육공학
4 교육사철학전공	한용진	교육기초학(교육사학, 비교교육학)
5 교육정보전공	임희석	컴퓨터교육학
6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변기용	고등교육
7 국어교육전공	이관규	국어학
8 기업교육전공	조대연	HRD 및 성인교육
9 도덕·윤리교육전공	김형찬	한국철학
10 미술교육전공	이예승	한국화
11 상담심리교육전공	고영진	임상심리학
12 생물교육전공	김종호	분자세포생물학
13 수학교육전공	김용철	해석학
14 역사교육전공	정순일	일본사
15 영어교육전공	어도선	영미시
16 영재및특수교육전공	손승현	특수교육
17 유아교육전공	임정하	아동학
18 일반사회교육전공	정일준	사회변동론, 사회화방법론
19 일어교육전공	유재진	일본근현대문학
20 체육교육전공	김매이	여가 및 레크레이션
21 컴퓨터교육전공	박성빈	전산학
22 평생교육전공	조대연	HRD 및 성인교육
23 한국어교육전공	장경준	국어사

※ 한편, 각 주임교수의 연락처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전공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교육과 이슈

올림픽과 젠더 감수성



김은혜

경기도 교육청 양성평등교육지원단 위원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젠더’는 뭐고, 그걸 느끼는 감수성은 또 뭘까? 하지만 젠더 감수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젠더라는 것은 여러분과 상당 시간 동안 붙어 다녔던 일종의 ‘사회적 옷’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별’을 받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성별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한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산모가 딸인지 아들인지를 물어보는 아래와 같은 대사가 나온 적이 있다.

“선생님, 저희 애는 블랙핑크를 시켜야 하나요. BTS를 시켜야 하나요?”

걸그룹과 보이그룹,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의상부터 노래의 내용까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상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입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미래를 그린다. 딸이라면 치마를 입고 긴 머리에 화장을 한 채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걸그룹을, 아들이라면 강렬한 복장에 파워풀한 춤을 추며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봐”라고 말하는 보이그룹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젠더다. 젠더란 사회적으로 ‘여자’ 혹은 ‘남자’로서 어울린다고 여기는 행동을 ‘프레임화’해서 일종의 옷처럼 걸치게 만든 ‘사회적 성 역할’이다. 그렇다면 젠더 감수성이란 뭘까? 이런 성별 고정관념인 ‘젠더’를 느끼고 이것을 타파해 나가는 것을 ‘젠더 감수성’이라고 말한다. 결국 젠더 감수성이란 젠더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센서인 셈이다.

젠더는 아주 공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쉽게 뒤집을 수 있기도 하다. 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을

‘젠더’라는 틀 안에 놓고 가르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한 공간이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남학생들이 많으면 그반은 가르치기 힘들다.”, “여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암전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다.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마찬가지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에서 거친 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반응도 서로 다르다.

“남자애들은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죠.”

“여자애가 왜 저렇까... 다른 여자애들은 안 그러는데.”

남학생들은 항상 끝까지 도전하도록 요구받는다. 안되더라도 “한번 해 보더라도 해.”라는 말을 듣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전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반면 여학생들은 어떻게? 여학생들은 ‘안전’하고 ‘완벽’하기를 요구받는다. 실제 교실에서 학습 활동을 하면 많은 남학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학습 결과물을 만든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교사의 요구에 맞춰서’, ‘질문에 쓰여 있는 대로’ 완벽하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도전’과 ‘실패’는 젠더에 따라 남자에게만 많이 요구되고 여성에게는 낯선 용어가 되어버린다. 반면 ‘완벽’은 여성에게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덕목이자 의무감이 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워킹맘이 집안일과 직장 업무를 둘 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때 스스로 드는 죄책감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워킹맘과 반대되게 워킹대디는 육아와 일의 완벽한 양립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어릴 적부터 젠더라는 틀 안에서 성장하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위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있다. 바로 운동장이다. 지금이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의 운동장은 다 남학생들 차지였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삼삼오오 모여앉아 수다를 떨거나 놀이를 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여학생들은 점점 운동장에서 멀어지도록, 남학생들은 점점 운동장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강요를 받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젠더의 틀을 크게 두드린 올림픽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 개최된 올림픽이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성비가 50대 50에 가장 가까운 올림픽이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여성 스포츠 선수를 보게 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젠더 감수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4강에 들어간 여자 배구를 예로 들어 보자. 내 주변 지인들과 SNS에서는 연일 배구가 화제였다. 더 정확히는 배구 경기 중인 여자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거친 플레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사람들에게 ‘여자도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로 다가온 것이다.

사실 여성들의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활발해진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다. 여성들의 축구에 관한 책이 화제가 되더니, 한 개그우먼의 스포츠 도전기가 유튜브에서 대히트를 쳤다. 여기저기서 여성들의 운동 클럽도 만들어져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 TV 프로그램인 ‘노는 언니’ 역시 다양한 종목의 여성 운동 선수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에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를 시작하게 된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대부분 “내가 왜 이 재미있는 걸 안 하고 살았지?”, “이런 경험은 진짜 처음이야!”라는 반응을 보인다. 성별 이분법 안에서 성장하며, 경험한 체육 종목이라고는 피구뿐인 여성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란, 여태까지 본인이 성

장해 온 성별 고정관념을 뒤집는 경험이다. 뛰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다치며 경쟁하고, 승부하는 경험을 처음 해 본 여성들은 정말로 너무나 재미있어한다. 성별 고정관념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는 증거다.

올림픽을 관람하는 많은 여성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올림픽에서 비교적 순위가 낮았던 여자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런 의지로 4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여성으로서, 여학생으로서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렇게 올림픽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경쟁과 도전은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우리는 한 성별에 한정하여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올림픽이 끝나고, 개학 후 학생들을 만나면 내가 보아온 여성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한다. 많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지도록 말이다.

여러분이 이번 올림픽을 즐겁게 즐겼다면, 올림픽에서 비쳤던 여성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의 미디어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속 유튜브의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비치는지, TV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아마 올림픽의 여성 선수들과 미디어의 여성과 남성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이미 여러분의 젠더 감수성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회 안에서 생활할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제19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월)부터 8월 11일(수)까지 '한국어 교재, 한국어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9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44개국 400여 명의 현지 한국어 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2003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며, 한국(학)어 전문가교수, 해외 초·중등학교 및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 교원, 그리고 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술회의와 연수를 병행한다.

참석자 중 전문가 집단은 매년 주제에 맞게 현지 한국어 교재 개발·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교재 개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현재 초·중등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집필진이 교원을 대상으로 교재의 개발 원리 및 실제적용 방안을 연수한다. 교육행정가는 해외 한국어교육 협력 정책, 각국의 맞춤형 교재 및 교원양성체계를 포함한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국어교육의 확산 및 현지 정착에 기여한 6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응원 팀인 중·베트남 교육훈련부 부국장은 지난 2020년 3월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2021년 2월에는 제1외국어로 채택되도록 기여하였다. 수비 자안타 나와라트너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장은 2020년 12월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고, 2023년 대입시험 과목으로 포함되도록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브라질 상파울루주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어의 정규과목 채택과 현지 교원양성과정 개설을 포함한 한국어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후 이번 면담의 결과를 담아 '브라질 한국교육원-상파울루주 교육부 간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높아진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이 현지 교육제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교육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부-시·도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 어려움 해소

교육부는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사업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총 1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50%씩을 분담하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사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사도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다.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대면등교 축소 및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중합고)) 학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전공 관련 자격증(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함) 취득 △취업준비 활동(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아우스빌드, 도제학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등) 참여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이다. 개별 학교에서 대상 선정 후 사도교육청에 명단을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대상 확정 후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도별 지원 인원의 경우 작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사도교육청은 교육부 추진계획을 토대로 사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학생 수가 사도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소득층, 소외지역, 취업준비 활동 기간, 취득 자격증 수 등 사도교육청의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도 함께 이루어진다. 밀도 높은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1교당 평균 1명씩 실습지원 멘토링 보조강사(총 580명)를 배치한다. 멘토링 보조강사의 경우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장이 학교 계열, 학과 운영 현황,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 자격증 유무 등 자체 선별 기준을 수립한 후 멘토링 보조강사를 선별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추경에 따른 각 사업들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고졸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교육부, 제21차 교육인론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목) 제21차 교육인론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사업유치원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그간의 정책에 대한 학부모교원 5,400여 명의 인식을 사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 문항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개선 여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여부, 교원의 애로 사항 확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의 제강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 방안, 사업유치원 육성 지원 방안, 학부모 안심 유치원 등의 과제를 점검하였다. 또한, 사업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안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디지털 교육 환경 대응 방안 등 향후 협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본 과제는 2018년 12월부터 추진·보완되어왔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 내 성범죄 신고와 대응 체계가 구축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이 내실화되었다. 나아가, 교원의 사전처리역량 강화 교육과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원 양성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사도교육청과 대학별로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하여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신중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오는 10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학교장 주관의 교내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 예방 교육콘텐츠와 아카이브 형태의 양성평등 교육자료 또한 개발 및 제공된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교육과 학문

백워드 수업설계에 기초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수업 개발



유세종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도당고등학교 교사

영속적인 이해를 위하여 평가가 수업의 전반을 이끄는 것이 백워드 수업설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백워드 수업설계 방식으로 단원을 개발하면 교육내용과 평가, 그리고 수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습자들의 '영속적 이해'를 보장하는, 질적으로 높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으로까지 발전시킨다. 더불어 교사는 백워드 수업설계로 단원을 개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자, 실행자, 평가자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한다.

본 연구는 형성적 연구 방법론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설계' 내용 요소를 백워드 수업설계에 적용하였다. 전체적인 수업 개발의 틀은 체제적 개발 과정의 요소가 포함된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수업 개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Park(1996)의 체제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 첫 단계인 '조사' 단계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수업 개발의 하위단계인 수업설계는 Wiggins와 McTighe가 제시한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였다. 이어서, 개발된 수업의 타당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여 수업 개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수업 실행 후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를 평가하여 가정교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시사점을 찾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완성된 템플릿 안의 내용은 Wiggins와 McTighe(2005)가 제시한 동심원 구조를 활용하여 가족생활 설계와 관련된 하위 내용 요소에 대한 우선순

위를 명료화하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을 찾았다. 그 결과 가족생활 설계의 영속적 이해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에는 '가족생활 설계를 위한 진단', '가족생활 설계의 과정', '가족생활 설계의 실천과 평가'로 추출되었다. 또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핵심개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영속적 이해를 포괄적인 일반화된 지식의 진술문으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족생활 설계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래성 있는 계획이다. 가족생활 설계를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진단하고 설계의 과정에 따라 설계한 후,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가치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가족생활 설계' 영역에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고 수업을 체제적으로 개발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내적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업개발 절차와 내용 구성의 도출과정, 내용의 구성 요소, 사용성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4점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은 4점 만점에 3.7로 나타났고, 문항별 타당도지수(CVI)는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체점자 간 일치도 지수(IRA)도 모두 1로 나타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일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생활 설계' 영역에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여 수업을 체제적으로 개발한 수업의 외적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수업을 실행하고 학습자의 이해정도나 만족도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속적 이해를 보였다. △가족생활 설계의 의미 △가족생활 설계의 필요성 △가족생활 설계의 원리 △가족생활 진단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생활 진단의 영역 △가족생활 진단 과정 및 고려할 사항 △가족생활 설계의 절차와 방법 △가족생활 설계를 위한 가정생활 구조와 내용 △가족생활 설계의 지속적 실천과 평가 방법 등

사전-사후 평가의 점수 변화에서도 모든 학습 주제에 대한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68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백워드 수업 설계를 적용한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수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영역으로 볼 때 특히 가장 만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M=3.77)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워드 수업설계에 기초한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체제적 수업 개발안은 수업의 개발 과정 및 실행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가족생활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지식·원리 등에 대해서 학습자의 영속적 이해를 촉진시키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백워드 설계에 기초한 체제적 수업개발안의 절차와 내용을 가정교과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백워드 수업설계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기

본으로 하여 전이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개념·지식·원리·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일반화된 지식 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개념·지식·이론 습득에는 유용하였으나 자칫 기술적 행동에 치우쳐서 수업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교과에서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여 수업을 개발할 때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고찰하여 교수-학습 활동이나 평가 과정에 실천적 추론 과정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 이를 실천적 문제와 연결하여 교수-학습활동을 개발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생활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진단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생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한 후 평가 및 피드백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가족생활 설계의 성취기준과 학습내용 요소에 '가족생활의 진단'과 '가족생활 설계 실천 후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서 수업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가족생활 설계와 관련된 학습 내용 중,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설계 영역과 관련된 문헌 및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가족생활 설계 영역의 핵심 개념·지식·원리·이론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내용을 가족생활 설계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하지만 이를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이 분야의 더 많은 내용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를 통하여 좀 더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도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영속적 이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수업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iggins와 McTighe(1998)는 학생들의 영속적 이해와 전이를 강조하는 성취기준 중심의 '백워드(Backward) 수업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백워드 수업설계는 기존의 전형적 방식과는 달리 교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학생들이 목표를 이해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며, 이후 학생들이 평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계획 및 조직한다. 즉, 평가 계획이 학습경험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보다 선행되며 학생들의



교육신문 문화평

조지 해리슨 20주기 특집: 비틀즈의 역사 ①

'비틀즈(The Beatles)'의 태동: '쿼리멘'에서 '비틀즈'까지



쿼리멘 시절의 존 레논

© Liverpool Echo

즈에게는 그런 별칭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이들의 이름은 마치 '카이사르' 처럼, 그 자체가 다음 지배자에게 수여되는 왕관이다(가장 최근에 치러진 대관식에서 '제2의 비틀즈'로 즉위한 주인공은 BTS였다). 무엇이 '비틀즈'로 즉위한 주인공은 BTS였다. 무엇이 '비틀즈'로 즉위한 주인공은 BTS였다. 무엇이 '비틀즈'로 즉위한 주인공은 BTS였다.

주지하듯 '로큰롤'은 40년대 후반 미국에서 흥기한 장르이다. 이 시기(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음악 자본은 전후 호황과 함께 부상한 '10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10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만의 흥취를 표출할 음악으로 주목한 장르가 로큰롤이었다. 영화계의 제임스 딘과 말론 브란도처럼 로큰롤에도 하나의 표상이 되어줄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소명을 부여받은 이가 바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이다. 이후 약 10여 년 동안(특히 50년대 중후반) 엘비스를 위시한 로큰롤은 10대의 정서를 지배했다. 그러나 곧 그저 비극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스타들의 잇따른 죽음과 기성세대의 반발이 겹치며 미국의 로큰롤은 급격히 쇠락한다. 결정적으로 1958년 엘비스의 군 입대는 로큰롤의 항복 선언과 같

은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발 로큰롤의 바람은 곧 세계의 젊은 세대를 자극했다. 영국의 리버풀,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10대 시절 비틀즈 멤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틀즈의 네 멤버인 존 레논(40년생), 폴 매카트니(42년생), 조지 해리슨(43년생), 링고 스타(40년생)는 리버풀에서 건너 건너 서로를 알 수 있는, 소위 '동네친구'였다. 당시 리버풀의 10대들 사이에서 주류를 형성한 건 '스키플(Skiffle, 블루스·재즈·민속음악 등이 혼합된 장르. 코드 구성이 간단하고 집안의 각종 잡기까지 연주에 활용하는 등 접근이 쉬웠음)'이었는데, 1957년 고등학생이던 존 레논이 결성한 '쿼리멘(Quarrymen, 당시 존 레논이 다니던 고등학교 이름인 '쿼리뱅크'에서 따옴)' 역시 스키플 밴드였다. 이 시기 쿼리멘에서 존 레논을 제외한 여타 멤버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리더인 존의 기분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존 레논의 친구 아이반 본이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폴 매카트니를 소개하고, 폴이 같은 학교 후배인 조지 해리슨을 데려오면서 비로소 멤버가 고정된다(스튜어트 서트클 리프(베이스), 피트 베스트(드럼) 포함).

이들은 모두 스키플로 시작했지만,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로큰롤에 대한 동경을 공유했다. 이미 영국 음악계는 발빠르게 '영국의 엘비스'라 불리는 클리프 리처드를 발굴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파커 대령에게 장악당한 후기 엘비스처럼 '표백된' 이미지와 얌전한 음악, 그리

고 주류인 런던을 대변하는 그는 비틀즈의 관심 밖이었다. 이들의 관심은 초기 엘비스, 리틀 리처드, 척 베리 등을 향해 있었다. 한편 초창기 멤버 구성만큼 밴드의 이름도 수없이 바뀌었는데, 1959년 말쯤에야 존이 제안한 '비틀즈'로 확정된다. 이는 또 다른 초기 로큰롤 영웅 버디 홀리(Buddy Holly & The Cricket)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크리켓'처럼 이중적인 의미(1. 귀뚜라미 2. 영국의 스포츠)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딱정벌레를 의미하는 'beetle'의 한 글자를 'a'로 바꿔, 박자(beat)를 의미하게 만든 것. 존 레논은 이런 식의 말장난을 좋아했다).

그 이름부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다. 이전까지의 아티스트들은 솔로 가수 자신의 이름(활동명) 아니면 '리드 싱어+반주 그룹' 형태(버디 홀리의 예에서처럼)의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비틀즈는 멤버 중 누군가를 내세우는 게 아닌 그룹명 자체로 하나의 정체성을 표현한(적어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록 밴드 중에서는) 최초의 밴드였다. 물론 정작 이 시기 그들은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직업을 찾으려는 가족의 질책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버풀에서도 무명이라는 불안과 열등감을 안고 있었고, 그들이 만든 이름이 향후 10년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세계 음악 산업을 가장 깊이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과 스승

청소년이 행복을 말하는 사회를 꿈꾸는, 서현석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육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서현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이에게 보이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아이들의 눈빛을 먹고 사는 교사'로 지내오신 서현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현석

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1979년, 학생 티도 벗지 못한 채 시작했던 교사의 길을 걸어온 지 벌써 4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교사의 길은 제게 천직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운동가로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던 교육자의 길은 후회 없는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먹고 사는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아이에게 보이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 '세상에 문제야는 없고 문제 어른만 있을 뿐이다'라는 신념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살려 '학생생활교육 연구소'를 설립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정년퇴임에 맞춰 아동청소년교육학 박사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은 청소년이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정년퇴임 이전까지 인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이 한 해 백 명이 넘는 학교에서 무결석반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중도탈락이 없는 학급 운영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인천교육청 공립위탁대안학교인 한오름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였죠. 위기학생 지도에 열정을 쏟아오던 저에게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대안교육은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동시에 초대 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위탁생 준비교육, 대안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위탁준비교육 '징검다리교실'을 운영하셨죠.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게 되는 것은 부모와 관계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교실은 3일간 운영되는데, 첫째 날은 온종일 부모와 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감대통'이라는 오픈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아이 콘택트와 스킨십 등을 통한 '공감접점 찾기', 편지쓰기와 가족전래놀이를 통한 '결속하기', 자녀를 살리는 말 한마디라는 주제의 '자녀와의 대화법 익히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탁교육 전 부모의 역할 증대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교실은 사춘기를 겪으며 단절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걸음만 보고 판단하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녀의 내면을 읽을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관계회복을 돕는 것이죠. 또한 징검다리교실은 학업중단 예방에 필요한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능력 함양,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등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중심 'SYST Mentoring(다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SYST Mentoring'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교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바로 'SYST Mentoring'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2012년, 이 프로그램으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정책제안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관계갈등 때문에 불안정한 학교 생활을 합니다. 부모와 갈등을 겪는 학생, 엄격한 규칙 때문에 교사와 갈등을 빚는 학생, 또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저는 관계회복이 이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YST Mentoring'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관심', '배려', '존중', '공감'입니다. 한 명의 부적응 학생(멘티)이 있으면 부모, 교사, 또래, 지역사회 심리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합니다. 그 후 멘티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멘토단과 공유하고 학



생과의 관계 활동을 이어갑니다.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보살피 준 결과 놀라운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현장에서도 'SYST Mentoring'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020년에는 학업지속률 98%를 달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자일체 감동캠프'도 개발하셨죠.

교사가 위기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보살피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오랜 시간 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또다시 선생님과 갈등을 야기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이 때문에 부모교육만이 위기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돕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를 개발하여 9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이수학생의 학교폭력 재발률이 2%에 불과한 성과를 거두었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 부모와 자녀의 결속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에 있습니다.

부모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갑 여섯 개를 갈취하여 강제 판매를 하는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께 학교 방문을 요청했는데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한 듯 학교 방문을 거부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을 퇴학시켜달라는 민원을 넣은 상태였죠. 어떻게든 아이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아버지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아침마다 아들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매일 세 번씩 아들을 안아주라고 권면했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포옹하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엔 그 학생이 미리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 역시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했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후 가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돕는 과정에서 '부모가 2% 변하면 자녀는 100% 바뀐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라는 냉소적인 표현에 "선생도 있고 스승도 있다."라고 항변하며 흔들리지 않고 교단을 지켜왔습니다. 제게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후회 없이 교육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만났던 열일곱 분의 은사님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하나하나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은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선생님의 본모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시골 오일장 간이 국밥집 아들인 제가 전교 회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는 끼니를 굶는 제자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켜가며 집으로 불러서는 매일 저녁을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훗날 저 또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교편생활을 통해 절실히 느낀 것은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를 살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뿐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제자들에게 "저도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롤모델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교육과 세계

우리의 근현대사인 일본 내 한국학교

- 그들의 역사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수록되기를...



정희영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는 각 경기마다 승리한 학교의 교가 가 고시엔구장에 울려 퍼진다. 지난 봄 대회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무관중 운영되었지만, 첫 승을 한 교토국제학교의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던 장면을 NHK방송으로 보고 들으며 가슴 뭉클했던 사람들은 비단 재일동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름 고시엔 대회를 앞두고는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장관이 직접 교토국제학교의 대회 출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우리 동포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조국을 그리며 자녀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전국에 600여 개소에 달하는 국어강습소를 만들었다. 약 6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했으며, 점차 체계적인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1948년 1월 24일 일본 문부성은 각 도도부현에 '조선인학교 설립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3월 말까지 일본 교육법에 준한 사립학교 인가를 신청하라는 명령이었다. 고시 기한을 기점으로 야마구치현(山口県)부터 조선인학교 폐쇄령이 내려졌고, 강제적으로 해산이 집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당해 4월 오사카(大阪), 고베(神戸)에서는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闘争)이라는 민족교육에 관련한 조선인들의 큰 저항이 있었다.

1948년 당시, 동포들의 뿌리인 한반도는 남북 이념대립으로 바다 건너 동포사회에는 관심조차 없었지만, 재일동포들은 한신교육투쟁을 통해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폐쇄령 이후에도 일본 각지에서는 '무인가(無認可)학교'로 민족교육을 지속하거나 공립학교 분교로 존속하고, 공립학교 속에 민족 학급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 교육을 유지하려는 재일동포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그 가운데 1개교였던 교토국제학교가 고시엔에서 한국어 교가를 처음 울린 것이다.

한편, 조선인학교 폐쇄령 하에서도 유일하게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 가운데 동포의 손으로 가장 먼저 창학한 또 하나의 학교가 오사카(大阪)에 있다. 민족교육은 물론 1949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까지 개교하고 이념적으로 남북 어디에도 기울지 않은, 교훈의 첫 번째가 자주(自主)인 백두학원(白頭學院) 건국학교(建國學校)다. 사실상 해방 전, 일본에서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일본 중·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건국학교는 우리 손으로 일본인 이상의 교육을 동포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창학 준비 단계에서부터 오사카부(大阪府)에 학교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일본의 학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일본의 보통학교와 '동등한 법적 자격'을 갖고 안정된 운영과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민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본교육역사를 백두학원 건국학교가 쓴 것이다. 1951년 건국학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의 정규학교 자격을 취득하였다.

건국학교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동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는 분단된 조국이 아니라 하나된 조국이라는 창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1946년 창학부터 1977년 한국학교로의 인가를 받기까지 30년여 동안 우리 교육 근현대사의 유일한 '남북공학(南北共學)'이었다. 건국학교는 지금도 매년 4월 24일이면 한신교육투쟁의 날을 기념하는 식을 거행한다. 여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역사인 재일동포들의 교육투쟁사를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2021년 현재, 일본에는 60여개의 조선학교와 한국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4개의 한국학교가 있다. 1946년 개교한 백두학원 건국유치원·초·중·고등학교, 1946년 개교한 금강학원(金剛學園) 오사카금강인터네셔널·중·고등학교(大阪金剛インターナショナル小中高等学校), 1947년 개교한 교토국제학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1954년 개교한 동경한국학교, 이렇게 4개교가 한국학교다.

이 가운데 동경한국학교는 조선학교 등과 같이 단독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 현재 100% 한국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반면 나머지 3개교(백두학원, 금강학원, 교토국제학원)는 정식 학교법인이 있는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다. 교토국제학교의 야구부가 일본 선발고등학교야구대회에서 교토부 대표로 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건국학교가 조선학교 폐쇄령 속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이 한국학교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는 운영 자금 문제에서 일본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에 의해 공적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교육 법 제1조(条)에서 규정한 학교' 즉, 일조교(一條校)라고 한다. 일조교인 한국학교에서는 의무적 학습지도 요령에 준거하여 문부과학성에서 검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실시하고(70% 일본교육과정 이수 필수 사항), 민족교육으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 수업 등을 실행한다(30% 민족정체성교육).

일조교이기도 한 일본 내 한국학교는 이제 재일동포 학생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일반 체류자들의 자녀를 비롯하여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학교가 아닌 특별함을 찾아 한국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세월보다 더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로는 한국 정부에서 1961년 처음 승인을 받고,

일조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파견 교장이 있는 금강학원이 학교명을 2021년 4월부터 '오사카금강인터네셔널·중·고등학교'로 바꾸었다. 금강학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가도, 교복도, 커리큘럼도, 홈페이지도, 금강학원의 건학 이념과 사랑하는 금강 학생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내 한국학교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국제 감각을 익힌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한국학교로 거듭나기 위하여 금강학원은 먼저 용기 있는 혁신의 첫걸음을 옮기고 있다.

외교부 재일동포자료에 따르면 귀화자 37만여 명을 제외하고도 약 45만 명의 한국 국적 동포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동포사회조차 분단되어 있는, 해방 후 76년이 지난 오늘까지 영주권자의 84%가 특별영주권자로 해방 전, 혹은 직후 일본 거주자의 자손이기도 한 재일동포 사회는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 가운데에서도 교육, 즉, 동포교육에 큰 시사점을 준다.

1950년대 중반 조총련의 반한(反韓) 활동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서 시작하여, 1970~1980년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던 기민(棄民)정책으로 일관한 재일동포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현지적응과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도, 교육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의 축하 동영상을 보며 기꺼운 한편, 오랜 세월 고착화되고 화석화된 재일동포교육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민감함일까? 우리 근현대사인 재일동포사 가운데 특히 어린 자이니치(在日)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부디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과 함께 평등한 접근이 가능한 공평한 교육이 보장되도록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교

2021년, 재일동포 교육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쓴 교토국제학원(京都国際学園) 교토국제학교(京都国際中等学校)의 한국어 교가다. 일본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개최되는 일본 청소년들의 로망이자, 98년의 역사를 가진 선발고등학교야구대회(選抜高等学校野球大会)에 교토부(京都府) 대표로 일본 내 한국학교인 교토국제학교가 출전했다. 일본의 총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역 예선을 거친 대표들만 출전할 수 있는 이 대회



교육현장노트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은 출범 전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습 유형에서 사교육업체들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세부 내용 때문이다. 과연 공교육은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력 격차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가 필수적인 교육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은 학습을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공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의 시행이 6년에 이를 동안 방과후학교에서 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을 뿐, 여전히 사교육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기쁨을 보고 있다. 학력 격차를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해 교육 주체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장려한다면 흥의 인간의 교육 이념은 퇴색된 채 성적만 잘 나오면 어떤 수단이든 좋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이른바 '1타 강사의 강의를 제공하는 극약 처방이 성공하더라도,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공교육은 재차 사교육을 찾는 사회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서울시처럼 사회적 요구로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올해 초에도 한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지난 4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며 교육 이념으로서 흥의 인간의 가치를 재확인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면 교육 주체는 어떤 노력을 제공해야 하는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의 맹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작년 4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원 사업 규모가 최소한도에 그쳐 실효성이 의심된다. 교육 실습 과정에서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피상담자들은 기기의 격차를 호소함은 물론 통신 환경의 문제로 수업 참여조차 곤란을 겪은 날들이 있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월 19,250원

의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금액은 비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서버 혹은 가정 내 통신 접속의 과부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원활한 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인터넷망의 월 이용료는 지원 금액의 150%에 달하지만, 교육부는 겨우 최대 백 메가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비와 함께 학교 수업과 관련성이 먼 EBS 콘텐츠 무제한 제공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는 서울권 정책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업체의 콘텐츠 제공 외에도 지난달 17일부터 대학생·대학원생 멘토 오백 명을 모집하여 비대면 학습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멘티에게 학습 피드백을 지원하여 학습 의지와 자기 주도 능력을 높이고 진로 고민, 진학 상담의 병행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부유층과 비교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근본적인 비계 제공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덕재

국어교육전문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를 복원한다며 3년간 단계적으로 '서울린'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저소득층 청소년에서부터 청년을 거쳐 종래에는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서울린

문화 탐방

은평의 사라진 <집 꽃 마을...> 그리고 뉴타운의 기억

이번 문화탐방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강홍구 작가의 기획전시 <집 꽃 마을...>을 소개합니다. 은평구는 지난 2002년 10월, 30여 년간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며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0월까지 주택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을 오롯이 사진으로 담아낸 강홍구 작가의 전시를 통해 은평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의 기억을 간직하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은평구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만나볼까요?



<집 꽃 마을...>

- 전시장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기간: 2021.05.19.(수)~9.26.(일) (매주 월요일 및 추석 연휴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5시 입장 마감)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티켓 발권 및 입장 가능
- 관람연령: 제한 없음
- 관람요금: 성인 1,000원 / 학생, 군인 500원 / 미취학 아동, 경로 등 무료
- 전시문의: 02-351-8523~4

-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관람안내
- 단체 예약 불가
- 전시해설 미운영
- 사전예약 없이 현장예매로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동시간 관람인원 제한: 시간당 39명

내 집 뜰에서 심수 년 머문 해당화와, 상 년을 먹고 짓던 잡종견이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 갈 줄 아는 듯하였다. 지난봄 내내 개는 제 집안에서 말라갔고, 그 옆에 선 해당화는 가시 돋친 줄기에서 새싹 두었만 내냈기 때문이다.

우리 마당 이 물건들은 여름 내내 "다 함께 살 아파트는 어디 없냐?" 했지만 그 여름 다 가기 전 우린 헤어져야 했다.

그 해당화는 화분에 심었다가 죽었고, 남의 집 살이 보낸 개는 새 주인과 함께 행방을 감추었다.

이듬해 봄 나의 옛집은 헐렸고, 버린 가구들이 쓰레기 되어 찾아간 우리를 외면하였다.

- 이유경, 「자갈치통신」 중 「해당화와 개」 -

※ 이유경 시인은 진관동 한양주택에서 23년간 거주했으며 재개발 풍경을 담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는다. 박물관에서 유물과 고서로 보존되기도 하고 예술가들에 의해 사진 또는 그림으로, 글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사진은 현대적 기록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사진이 기록물에서 나아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의 소신과 미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것이다. 강홍구 작가는 디지털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며 우리 곁에 있던, 지금은 사라진 동네를 담아왔다. 2009년 이후 사진 위에 색을 칠한 <그집, 2010>, <녹색연구, 2012> 등의 시리즈를 발표하였으며 본 전시에서처럼 시차를 두고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업 이어오고 있다.

<집 꽃 마을...> 전시에서는 은평뉴타운 시리즈를 통해 옛 진관동의 모습을 조망한다. 그는 다수의 작업을 통해 도시 주변부 공간과 그 변화를 포착해왔다. 그중에서도 뉴타운 일대의 변화상을 20년 가까이 성실히 기록하며 1,300여 장의 사진을 남겼다. 2001년, 불광동으로의 이주가 긴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지방 소도시와 같던 모습을 간직한 진관동의 풍경이 눈에 띈 것이다. 그 비현실적인 풍경은 작가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자연 부라이 변화된 듯한 작을 마을들 사이에 기차촌, 한양주택, 문석주택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이 섞여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이내 산책 삼아 동네를 걸어 다니며 그 풍경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런 그 역시 그곳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으리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 걸쳐 있는 은평뉴타운은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개발이 시작되기 전, 은평뉴타운의 대부분은 그린벨트, 자연 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며 건축물 4,230동, 8,721세대, 인구 25,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관동은 그렇게 2004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을 함축하는 공간으로 비치게 된다.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며 강홍구 작가의 작업 또한 전환점을 맞는다. 현실의 변화가 사진의 맥락을 바꾸고 재편집해버렸다. 그는 그의 작업물들이 다 큐멘터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의도도, 계획도 없었음에도 '뉴타운 계획' 발표와 함께 기록 사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강홍구 작가의 작업 방식은 '시차를 둔다'는 것이다. 한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여러 컷을 촬영한 작가는 이후 그 사진들을 이어 붙여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낸다.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가 유일하게 미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다.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사진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바라보면 그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그의 사진을 통해 사진 속 세계는 완결된 세계가 아닌 파편이며, 외부로 확장될 수 있는 큰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들은 다양한 모순을 안고 변화하는 도시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정감 있는 집과 낡고 침체되어버린 마을 그리고 신도시의 획일성이 한 프레임 안에서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묘한 감정들의 혼돈 속에서 작가는 삶을 조화롭게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는 1부 '자연과 마을' 그리고 2부 '소멸과 재생'의 두 주제로 나뉜다. 1부 '자연과 마을'에서는 물푸레골, 못자리골과 같은 옛 마을의 모습을 조망한다. 북한산과 어우러져 자연 친화적이던 독특한 장소성을 엿볼 수 있다.

<가을 다알리아, 2004>를 보면 집 앞과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식물이 보인다. 뒤로 보이는 산에서부터 집 앞마당까지 이어지는 꽃과 나무들이 옛 마을 고유의 분위기를 부각한다. 2006년 작 <물놀이>에서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이 더 돋보인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면서, 수영장이 아닌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았다. 단순히 자연을 곁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해온 생활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가을 다알리아, 2004>



<물놀이, 2009>

1부와 2부가 나누는 곳에는, 은평구의 지도와 함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강홍구 작가가 기록해온 사진들을 장소별로 묶어 전시해두었다. 1지구에 속하는 못자리골, 2지구의 우물골, 3-1지구의 한양주택, 구파발역, 물푸레골, 3-2지구의 제각말, 기차촌, 폭포동. 그 모든 마을이 사진으로 남았다. 집이 사라지기 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도 눈에 띈다. 사람들이 이사하며 버리고 간 물건들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자개농과 같은 가구부터 그릇, 심지어는 앨범도 버려지곤 한다. 강홍구 작가는 그 버려진 물건들을 찍으며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하곤 했다. 그리고 창문들이 사라진 공간으로 바뀐 풍경을 촬영해보기도 한다. 내부와 외부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2부 '소멸과 재생'에서는 2004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된 뉴타운 재개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전면 철거방식을 거치며 단기간에 8,700여 가구가 마을을 떠나야 했던 시간이 사진 속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마을과 골목길, 공동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낯선 풍경만 남은 공간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강홍구 작가의 시선으로 포착된 생생한 재개발 풍경은 작가의 탁월한 심미적 시선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판적 각성을 끌어내는 기록물로 남았다.



<철거 이후, 2006>

2006년 작 <철거 이후>를 보면 가로로 아주 긴 프레임 속 어느 곳에서도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순간에 한 마을이, 집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음을 사진 한 장으로 실감할 수 있다. 끝까지 집을 지키려 했던 모습 역시 사진으로 남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집이기에, 사랑하는 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을 담은 <내집사랑, 2007>이 그것이다. 결국은 버티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을 지키며 천천히 이별해나간 사람들의 사진은 또 다른 울림을 준다.



<내집사랑, 2007>

전시실을 나가는 길에는 영상 설치물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듀얼 스크린으로 중첩한 작업이다. 그 옆 벽에는 이유경 시인의 시 「해당화와 개」가 새겨져 있다. 사진 속에 보이던 꽃들과 개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물음을 남긴다.



사진은 인간의 유한한 시각과 기억력을 보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을 찍는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보지 못한 것,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사진이라고 강홍구 작가는 말한다. 관람자에게도 사진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단순히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 기억을 사람들과 나누며 교류하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한다.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진은 그 무엇이 됐든 지간에 피사체를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어떤 이미지를 아름답게 (혹은 끔찍하거나 견딜 수 없을 만한 것으로, 그도 아니면 꽤 견뎌낼 만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술 자체가 뭔가를 변형시키는 작업이긴 하다. 그렇지만 비참한 일들과 비탄받아 마땅한 일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사진은 '미학적'인 듯이 보이지만 하면, 간단히 말해서 지나치게 예술인 듯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는다."

강홍구 작가 역시 은평 뉴타운 개발 과정을 찍는 동안, 때론 찍고 난 다음 후반 작업을 할 때 이 문제에 부딪혔다고 말한다. "사진은 현실과 심미성 사이의 좁은 틈 사이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무너지는 집과 마을들, 결국은 죽어가는 개들과 나무들을 찍었지만, 그 피사체들은 변형되어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점이었다. 이는 대상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미지로 만드는 사진 자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라지는 것과 폐허가 주는 기이한 심미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현실에서 사진 속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 찍었던 현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이미지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미지들로는 과거를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다. 기록을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성과 심미성은 강화되어 결국, 수전 손택의 말처럼 꽤 '견뎌낼 만한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작가는 밝힌다. 꽤 견뎌낼 만해 보이는 사진 속 세상 또한 완결된 세상이 아닌 파편임을, 큰 세계의 일부일 뿐임을 다시금 되뇌어 본다. 그리고 사진 밖의 세계 또한 '견뎌낼 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강홍구 작가의 말처럼 이 전시가 '30초라도' 재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0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

▲ 가정교육전공

백희연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기술·가정 '청소년기 영양과 식행동' 단원의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최수빈 학점중심과정

▲ 간호교육전공

김미임 신장이식 환자의 이식 후 경과 기간 별 적응 경험
김수진 간이식 환자에서 대사증후군관리 건강행동과 건강관련 삶의질간의 관련성
김승진 종합병원 간호사의 개인·조직요인과 직무배태성
윤지애 소아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이용한 환자 분류 시 간호사의 인식 분석 -현상기술학적 접근-
이서연 프리셉트 간호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수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육역량 관련 요인
조수현 학교기반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건강신념모델 적용 -

▲ 교육방법전공

정은경 초등학교 수업에서 퀴즈 활동 매체에 따른 학업적 흥미와 학업성취도 차이 연구

▲ 교육정보전공

김여진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정보 윤리' 영역 구성의 탐구적 경향 분석
서민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ODA에 대한 수원급 관계자의 요구 분석
이영주 대학생의 비대면 강의 유형에 따른 교육 효과 분석 -오프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강윤형 공업계열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H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박수아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례연구 -Y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서연 공무원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영은 초등학교의 교사목표가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수흠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 불용액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어교육전공

권희수 국어 교과서의 질문생성 학습활동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윤미영 고등학생 독자의 자기 선택적 도서 선정 양상에 관한 연구 -문학 도서 선정 양상과 독서 경험을 중심으로-
임수정 시나리오 기반 중학교 글쓰기 수업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전공

김사라 학점중심과정
김후인 학점중심과정
류지현 학점중심과정
민시호 학점중심과정
박정민 학점중심과정
안수진 학점중심과정
이슬비 학점중심과정
차희용 학점중심과정
황건우 학점중심과정

▲ 기업교육전공

김경수 국내 대기업 사무직 구성원이 인식한 상사의 진성 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 관계에서 관리자 코칭행동의 조절효과
김지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남희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활동과 학습전이 관계에서 경력 계획의 조절효과
노치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특성과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기업교육전공

노현주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잡 크래프팅의 매개 효과
문미라 국내 HRD 담당자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중심으로
문혜원 국내 기업 구성원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매개효과
박미경 A은행 관리자의 성별에 따른 수퍼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

▲ 기업교육전공

박재형 A대기업 총사장의 그림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박형진 구성원의 감성지능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구성원이 지각한 상사의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
서동평 기업 관리자 코칭행동과 구성원의 혁신행동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신원기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서울 시내 거점오피스 선정
심형석 A社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 기업교육전공

위선희 대기업 사무직 구성원이 인식한 직속상사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 관계에서 구성원의 직무 재창조가 갖는 매개효과
유한빈 대기업 근로자의 창의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TMX(팀-구성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임규상 대기업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과업지향문화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임재영 수도권 IT기업 근로자의 세대별 일의 의미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기업교육전공

최유연 금융권 콜센터 관리자 코칭행동과 상담사의 주관적 경력성공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황갑영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 도덕·윤리교육전공

이상현 플라톤 「향연」(Symposium) 편의 에로스(eros)에 대한 고찰과 '사랑과 성 윤리' 수업 적용 연구

▲ 미술교육전공

정재희 미술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에 의한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 개발-
한승연 코로나19 시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화상 수업연구 -표양 강세황 70세 자화상을 중심으로-
김률희 학점중심과정
안현준 학점중심과정
양원희 학점중심과정

▲ 산업심리교육전공

임소연 학점중심과정
유민주 학점중심과정
정다운 학점중심과정
허수정 학점중심과정

▲ 상담심리교육전공

김이름 공교육 원격수업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지원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요한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부모의 무망감과 우울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상담심리교육전공

박수진 교사의 공감능력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연민과 타인 연민의 매개효과
박예진 목회자의 사회적바람직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석진아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가족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상담심리교육전공

이시연 초기성인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유진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은실 대인간 외상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관란의 매개효과
이정화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 상담심리교육전공

임종진 행위중심 공감사진워크숍에 참여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고정관념 해소 경험에 관한 초상화법 연구
전향숙 불교인의 종교신념과 공감능력의 관계: 자기기만과 인상관리의 매개효과
조재진 매슬로 유작 「인간 본성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번역 및 탐구
황보라 한국판 다차원 자기통제 척도(K-MSCS)의 타당화 연구

▲ 상담심리교육전공

고금정 학점중심과정
노도식 학점중심과정
박다혜 학점중심과정
박솔지 학점중심과정
박지나 학점중심과정
서지은 학점중심과정
오은송 학점중심과정
이예지 학점중심과정
임새일 학점중심과정
정우혁 학점중심과정
최영목 학점중심과정
홍지예 학점중심과정

▲ 생물교육전공

손혜진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 I, II 와 국제 바칼로레아 생물학 교육과정 비교 분석
박상우 학점중심과정
박소현 학점중심과정
임미희 학점중심과정
장석조 학점중심과정
최우혁 학점중심과정

▲ 수학교육전공

임종업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등거리변환의 분류

▲ 역사교육전공

김가현 학점중심과정
김경완 학점중심과정
김대연 학점중심과정
김도연 학점중심과정
김진영 학점중심과정
박광훈 학점중심과정
박준형 학점중심과정
송유림 학점중심과정
신희철 학점중심과정
이소희 학점중심과정
이승희 학점중심과정
표승진 학점중심과정
현석곤 학점중심과정

▲ 역사교육전공

구연수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의 한국 식민지 시기 서술에 대한 縦斷 研究
최연주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역사과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분석
최혜빈 COVID-19 상황의 중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역사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김민정 영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또래교수가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자기효능감과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재민 A Study on Patterns of Politeness Strategies Presented for the Request Speech Acts in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 역사교육전공

박연경 한-영 신문사설에 나타난 어휘응집 장치(lexical cohesion) 비교 연구
박윤희 Caldecott 수상 작품의 교육철학적 경향 분석 연구
신지우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의 거절 전략과 공손성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이건미 A Study on the In-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Implications on the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 역사교육전공

이지수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문학 분석 -Cinderella와 Ella Enchanted를 중심으로-
강지원 학점중심과정
김지민 학점중심과정
김지윤 학점중심과정
김태영 학점중심과정
맹희주 학점중심과정
박주용 학점중심과정
성한내 학점중심과정
신희수 학점중심과정
유세미 학점중심과정
이다은 학점중심과정
임소영 학점중심과정
정수빈 학점중심과정
조혜빈 학점중심과정
최하은 학점중심과정
홍희재 학점중심과정

▲ 영재및특수교육전공

지혜리 중재반응모델에서 수학 학습곤란(IQ) 학생의 증거 기반 중재 효과 분석
이선화 학점중심과정

▲ 유아교육전공

이한나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상희 학점중심과정
최혜원 학점중심과정

▲ 일반사회교육전공

엄선정 학점중심과정

▲ 체육교육전공

박연희 중년 남성의 가구 유형별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에너지 섭취 및 신체 활동량 비교 분석 -제7기(2016~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박윤조 SNS의 영상 콘텐츠가 여가스포츠로서의 피겨스케이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경록 학점중심과정
강현지 학점중심과정
김명현 학점중심과정
김예진 학점중심과정
김지연 학점중심과정
김지혜 학점중심과정
남인용 학점중심과정
박지현 학점중심과정
백오미 학점중심과정
선영아 학점중심과정
손서영 학점중심과정
이지민 학점중심과정
이희운 학점중심과정

▲ 컴퓨터교육전공

김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 분석 및 평가
박한별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도출
양은봉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적용 가능성 분석
박지현 학점중심과정
이다혜 학점중심과정
이현정 학점중심과정

▲ 평생교육전공

김미애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
서수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 만족의 관계: 세대별 차이 연구
석지나 비대면 쌍방향 실시간 교육환경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평생교육기관 강사의 교수행동과 학습전이와의 관계
이영은 평생학습기관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개인 특성과 교육설계 특성이 학습 전이에 미치는 영향
조남경 D교육기업 구성원의 셀프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최승연 서울 지역 해운물류기업 관리자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적응수행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 한국어교육전공

김남희 한국어 교재의 성 고정관념 분석
신윤성 다문화 배경 고등학교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학습 도구어 선정 연구
고미자 학점중심과정
안선영 학점중심과정
정은 학점중심과정
최수민 학점중심과정
LIUYU 학점중심과정